

# 생동하는 농어촌 지속가능 도시 만들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글로벌 매력도시 부안 실현을 목표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민선7기 부안군 권익현(權翼鉉)이 어느덧 2년을 맞았다.

민선7기 부안군은 신성장동력산업인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부안을 일구며 지역에 활력을 넣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내수시장 침체 등 국내외 정세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와 부안군 단일사업 역대 최고액인 곰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83억원) 등 굵직한 성과들을 창출했다.

또 ㈜컴버스테크와 ㈜퓨얼셀랩스, ㈜파셀, ㈜에프씨엠테크놀로지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벤처기업들이 속속 투자협약을 갖고 부안에 들어오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따라서 민선7기 부안군의 남은 2년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부안군은 그동안 다진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7기 하반기에는 다양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 테마 및 콘텐츠를 재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수소산업 육성, 크루즈 기항지 조성, 노을대교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 변산해수욕장·새만금 활성화 추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부안군은 문화와 관광이 꽃피는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단지 민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전북교육수련원 건립(297억원)을 위한 연수원 부지를 매각하고 한국고속도로공사와 협회해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260억원)를 부안고려청자휴게소로 건립하기로 했다.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오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매출액 50억원, 고용창출 200여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영상테마파크는 법정 소송 끝에 최종 승소해 정상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부안 직소폭포가 명승 116호로, 부안 점방산봉수가 전북도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돼 부안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부안고려청자 발굴조사 결과 최초로 전체 형태가 나온 청자 가마가 확인됐으며 전남 강진·해남군과 연계해 세계유산 등재 기반도 마련했다.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에서 (주)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새만금 명소화사업 민간사업자 관광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관광단지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춤추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람중심 포용적 교육복지 실현

민선7기 부안군은 춤추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람중심 포용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군은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숨씨 마을회장까지 513개 마을 85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난해 2001명에서 올해 2593명으

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 맞춤형봉사서비스를 통합 시행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완공해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이용편의가 확대됐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 푸드플랜 수립

####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

#### 제 값 받는 농어촌 시스템 추진

#### 변산해수욕장·새만금 활성화

#### 글로벌 휴양도시 기반 조성



### ▲ '코로나19 확산 위기' 청정부안 시수 총력 2020년 상반기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라는 복병 속에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두로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부안군에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 '한 템포 빠른 정책결정·추진' 지역발전 견인

민선7기 부안군은 자발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행정과 자율행정을 넘어 스스로가 찾아서 일하는 자발행정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 템포 빠른 정책방향 결정과 부서간 협업으로 지역발전을 한 발 더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자발행정 확산을 통해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행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민선7기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 '발로 뛰는 자발행정'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민선7기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위원을 거처면서 맺은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변영 필요성과 예산편성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도를 수시로 방문했으며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찾아다니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팔정을 펼쳤다.

그 결과 2020년 국가예산 5412억원으로 부안군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새로운 부안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 '부안의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민선7기 부안군은 농업과 관광, 미래신성장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196억원)와 수소충전소 건립(40억원),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17억원),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2억 5000만원), 수소전기차 민간보급(3억 6000만원), (주)컴버스테크·(주)퓨얼셀랩스·(주)파셀·(주)에프씨엠테크놀로지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벤처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동진면과 계화면 일원 380개소에 융복합 사업을 지원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위도지역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옛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연료전지 수소하우스 홍보관을 개관했다.

### ▲ '창의·선도적 도시재생' 매력도시 부안 실현

민선7기 부안군은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낙후된 구도심 및 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46년 묵은 숙원사업인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터미널에 휴

게소를 건립해 휴식공간을 조성해 폭염과 휴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매화종류미를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 안전, 교통, 가로등, 주차장 등 도시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 ▲ '푸드플랜·어촌뉴딜' 제 값 받는 농어촌 시스템 구축

민선7기 부안군은 제 값 받는 농어촌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쌀 천년의 숨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명품 부안쌀 '천년의 숨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부안군은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숨씨의 재배관리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해 6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 “미래 100년 경쟁력 확보 최선”

### ▶ 인터뷰 - 권익현 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과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등을 통한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안정적 소득창출 등을 통해 갈수록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다짐이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7기 부안군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부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부안군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펜데믹, 내수시장 침체 등 국내외 정세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상 첫 국가예산 5400억원 돌파와 단일사업

역대 최고예산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그동안 다진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7기 하반기에는 다양한 가시적 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컴버스테크와 퓨얼셀랩스, 파셀, 에프씨엠테크놀로지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벤처기업들이 속속 투자협약을 맺고 부안에 들어오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수소산업 육성과 함께 크루즈 기항지 조성과 노을대교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민선7기 하반기는 군민이 체감하는 군



정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현안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 템포 빠른 정책 결정으로 새만금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2023년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잼버리 성공개회를 위한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 제5차 국·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새만금 남북 2축도로 조기 완공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반시설 확충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궁항 마리나 및 격포항 확장과 연계한 크루즈 기항지 조성 등을 통해 격포권역을 해양관광체할베르로 개발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부안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된 부안마실축제에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시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전북대 부안 농생명 힐링밸리 조성으로 농생명 산업 발전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산 밀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밀산업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